

광주 '무승 탈출' 도전

13일 수원과 K리그 12R ... 박기동 가세 공격력 강화



수원도 전력 누수가 있다. 스테보가 성남전 고의적인 반칙으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징계를 받아 출전할 수 없고, 조동건은 어깨 부상으로 재활중이다. 수원 특점의 주요 루트인 두 선수의 공백으로 광주는 승점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부상에서 돌아온 박기동이 광주의 주요 카드다.

박기동은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후반 30분 김동섭과 교체해 들어가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재활이 끝났음을 알린 박기동은 팀의 특점 행진의 중심에 서게 된다.

광주는 최근 4경기 연속 경기당 2골을 넣는 등 17골을 기록하면서 제주(21득점)·전북(19득점)에 이어 K리그 다득점 3위를 지키고 있다.

수원전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박기동은 "올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께서 44개의 공격포인트를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려던 부지런히 뛰어야 한다"며 "이번경기는 반드시 이겨 동료들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원도 전력 누수가 있다. 스테보가 성남전 고의적인 반칙으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징계를 받아 출전할 수 없고, 조동건은 어깨 부상으로 재활중이다. 수원 특점의 주요 루트인 두 선수의 공백으로 광주는 승점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부상에서 돌아온 박기동이 광주의 주요 카드다.

박기동은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후반 30분 김동섭과 교체해 들어가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재활이 끝났음을 알린 박기동은 팀의 특점 행진의 중심에 서게 된다.

광주는 최근 4경기 연속 경기당 2골을 넣는 등 17골을 기록하면서 제주(21득점)·전북(19득점)에 이어 K리그 다득점 3위를 지키고 있다.

수원전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박기동은 "올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께서 44개의 공격포인트를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려던 부지런히 뛰어야 한다"며 "이번경기는 반드시 이겨 동료들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마운드 활력이 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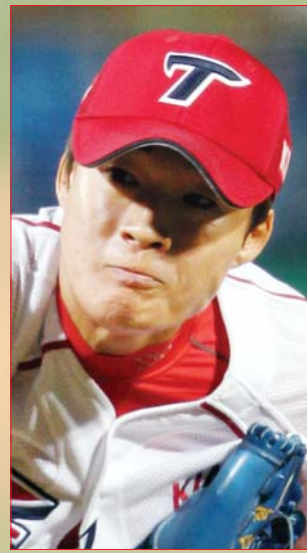
김진우·심동섭·한승혁·박지훈
부진했던 1차 지명 투수들 연일 쾌투



박지훈



심동섭



한승혁

한기주 마무리 복귀 땀 '막강 1차 라인' 기대

KIA 타이거즈는 2004년 동성고의 강타자였던 김주영을 1차 지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들어 진행된 신인 지명에서 모두 투수를 먼저 선택했다. 7억팔 김진우(진흥고)와 프로야구 최대 계약금의 주인공 10억팔 한기주(동성고), 강속구 군단의 광정철(광주일고)·한승혁(덕수고), 사이드 전태현(군산상고), 유일한 좌완 심동섭(광주일고) 등이 그 주인공.

하지만 기대속에 입단했던 1차 지명 투수들이 부상과 부진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KIA는 방어리 냉가슴 앓듯 했다.

잠잠했던 이들이 올 시즌 기지개를 켜면서 KIA 마운드에 활력이 들고 있다.

돌아온 김진우는 지난 9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1791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김선빈·안치홍의 연속타자 홈런 등 타선의 든든한 지원속에 6과3분의 1이닝을 5피안타 5사구 7탈삼진 1실점으로 막고 8-1 승리의 주역이 됐다.

방향을 끝낸 김진우의 속피투로 선발 고민에 빠졌던 KIA는 한숨을 덜었다. 한화 4연패 탈출도 이었다. 심동섭도 데뷔 후 첫 선발 출격에 나섰다 5일, 4이닝 동안 4개의 볼넷을 내주기는 했지만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괴물' 류현진과의 대결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KIA의 필승 불펜으로 출발을 했지만 초반 10점대가 넘는 방어율을 기록하는 등 극도로 부진했던 만큼 이날 심동섭의 피칭은 더욱 값졌다.

'아기 호랑이'들의 질주도 거침없었다.

2012시즌 1라운드 지명을 받고 호랑이 군단의 일원이 된 '투키' 박지훈은 흔들림없는 투구로 필승조로 맹활약하고 있다. 9일까지 11경기에 나와 13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는 동안 3점(2자책)을 내주는데 그치며 1.35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입단과 함께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한승혁도 재활을 끝내고 마운드에 오르며 프로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랜 공백으로 제구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부터 151km를 찍는 등 매서운 강속구로 1군 엔트리를 차지하며 이름값을 했다.

김진우·심동섭·박지훈·한승혁에 이어 한기주까지 가세한다면 막강 1차 라인이 형성된다.

한기주는 팀의 마무리 역할을 맡아 3경기에서 0의 방어율을 기록했지만 어깨 통증으로 재활군으로 내려갔다. 마무리의 부재 속에 팀은 위기의 4월을 보냈다.

통증에서 벗어난 한기주는 다음주부터 2군 경기에 등판해 1군 복귀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791일 만에 승리를 행진 김진우

추신수 멀티히트 6경기 연속안타 ... 팀은 1-8 완패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계속했다.

추신수는 9일 (현지시간)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정규시즌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에서 안타 2개를 때렸다.

네치레 타석에 들어서 안타 2개와 볼넷 1개를 얻어내며 3차례 출루한 추신수는 지난 21일 오를랜드 어슬레틱스와 경기 이후 18일만에 한 경기에서 2개 이상 안타를 치는 등 타격 감각을 한껏 끌어 올렸다.

타율도 0.236으로 다소 올랐다.

우익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2회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를 쳤지만 다음 타자의 직선 타구가 병살타가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5회에 내야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7회



중전 안타, 9회 볼넷을 얻었지만 도루나 득점 기회를 잡지 못했다. 클리블랜드는 1-8로 완패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운남고에서 '2012 스포츠 인권교육'

광주시체육회가 스포츠 현장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2012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시체육회는 지난 9일 운남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운남고 여자 축구팀과 광산중 여자 축구팀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교육을 열었다.

스포츠 인권 교육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며 폭력 및

성폭력 문제, 학습권 침해 등과 같이 학생선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다룬다.

시체육회는 지난해에는 광주체육고등학교 등 700여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성적은 바닥을 밟고 있지만 선수들의 '숫자'는 새로 쓰여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김진우는 지난 9일 한화를 상대로 6과3분의 1이닝 1실점의 투구를 선보이며 승리투수가 됐다. 데뷔 첫 시즌이었던 2012시즌 12승을 거뒀던 김진우는 1791일만에 자신의 통산 승수를 48로 늘렸다.

윤석민도 올 시즌 자신의 탈삼진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 4월 17일 넥센을 상대로 개인 두 번째 무사사구 완투승을 거두었던 윤석민은

김진우 1791일 만에 승리투수 ... 통산 승수 '48'
윤석민 넥센전서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 '14'
이용규 도루, 김선빈·안치홍 최다안타 기록 경신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13에서 14로 늘렸다.

플타자 이용규는 발로 기록을 썼다. 이용규는 지난 8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1회 좌완안타로 출루하자마자 베이스를

홈치며 통산 13번째로 8년 연속 두자릿수 도루를 달성했다.

'꼬꼬마 키스톤'도 자신의 기록을 바귀고 있다.

김선빈은 5일 넥센전에서 4개의 안타와

3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한 경기 최다안타, 최다도루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김선빈의 다섯 번째 타석에서 나온 2루타는 프로 통산 두 번째 팀 4만8000루타를 채운 안타이기도 하다.

다음날인 6일에는 안치홍이 5안타5타점으로 개인 한 경기 최다안타, 최다타점 기록을 경신했다.

두 선수는 9일 경기에서는 2회 나란히 홈런포를 가동시키며 백투백 홈런도 만들어 내는 등 맹활약중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